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학회를

김 건 중

(충남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전기학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선진 기술국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금 보다 더욱 학회를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고도 첨단 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현대에서 전기학회의 위상은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회 중에서 전기학회의 규모는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전기학회가 국가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선배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더욱 발전된 전기학회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후배회원들은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선배회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기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는, 학회 회원의 확대 문제이다. 한 학회가 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력 문제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때 그에 비례하는 많은 연구 성과와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기학회 회원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이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나의 생각으로는 학회가 대다수의 회원들의 생각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독주의 경우가 없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회원들이 자

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다른 모임이나 학회로의 이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 대부분의 이유를 돌릴 수 있지만 다시한번 음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회원들의 경우도 책임의 일부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학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면 비록 어떠한 경우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학회가 길을 갈지라도 한 순간에 자신의 등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회는 글자 그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 속에서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한 경우는 지방의 경우 의외로 지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또는 지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지방회원의 확보에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많은 사람들이 전기학회의 울타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학회활동의 본래의 임무에 관한 문제이다. 학회는 말 그대로 학문과 현장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산업현장과의 교류를 증진 시키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일한 사고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 마련이다. 비록 현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혹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 현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모든 것이 전자산업이라는 토기를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산업의 비중을 과소 평가하자는 말은 아니다. 산업은 나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 분야의 연구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은 모든 학문의 집합체요, 여러가지 학문의 유기적인 결정체라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최근 재료산업이 대단히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보자. 과거 어느 누구도 재료 분야가 오늘과 같이 그 중요성과 응용분야가 확대되리라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결국 선진국의 기술 예속상태를 재료분야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되었다. 특히 현대는 각국이 자국의 기술을 과잉 보호하려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과거 우리도 재료분야에 일찌기 많은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선진 기술국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최신의 이론을 많이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도 전기학회는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회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 분야별로 연구회

의 활동을 장려 및 독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사 원칙과 원리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과정과 끝맺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학회가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서 그 후의 일은 각 연구회에만 일임하게 되면 자칫 일과성 연구회에 그칠 염려도 있다. 그리고 연구회는 매년 그 활동 보고서를 작성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 활동은 이러한 연구회가 활발히 운영되다 보면 자연히 많은 훌륭한 논문들이 탄생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학회는 이와같은 연구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학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제가 두서없이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한데 대해 많은 회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서의 이야기는 제가 느낀 점이고 저보다 많은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글을 줄인다.